

제189회 중앙종회(임시회) 인사말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 그리고 종단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우리 종단이 새롭게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는 2012년, 우리 종단은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종단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불교가 동체대비심과 하화중생으로 사회와 역사, 그리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지 못하였음을 성찰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못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길을 함께 걸으며, 출가수행자의 소욕지족 정신을 올곧게 보듬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협의해 가면서 안으로는 자성과 쇄신을 통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흥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신뢰를 기조로 사회의 평화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지를 담아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종단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것 또한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종회 의원스님들께서도 국민의 행복과 평화라는 종단운영의 최우선 가치가 중앙은 물론이거니와 일선의 사찰에서도 올곧이 실천될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중앙종회 임시회는 몇 가지 중요한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헌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의 진중한 노력으로 총무원장 선거법을 비롯해 중앙종회 및 교구종회의원 선거법 등, 그동안 개선의 요구가 산재돼 있던 선거법을 하나로 묶은 ‘선거법 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구본사 주지 선출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교구의 대표권자로서 교구의 화합과 원만한 교구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산중총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 개최된 종단 현안관련 긴급간담회를 통해 선거공영제 도입을 비롯하여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내용을 강화한 산중총회법 개정을 중앙총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회의원 스님들께서는 ‘선거법 제정안’과 ‘산중총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에 임해주시고, 종도들이 이해하는 원만한 대안적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집행부가 제출한 불기2555년도 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셔서 지난년도의 종단 운영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금년도에 보다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은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해진 잘못된 관행과 관성, 구태를 벗어 던지고 미래 50년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과 화합으로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나아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이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내고, 세상과 소통한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33대 집행부는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길이요, 자성과 쇄신의 길임을 명심하며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길에 중앙총회 의원스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 그리고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